

‘디자인 실명제’로 패션 대중화 이끄는 동광

▶ 감소기업

여성캐주얼 브랜드 숲(SOUP)의 라벨을 자세히 보면 ‘디자이너 : 김OO’라고 적혀 있다. 다른 패션브랜드에는 없는 동광인터내셔널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재수 동광인터내셔널 회장은 “품질경영을 극대화해 마케팅 적중률을 높이자면 취지에서 10년 전부터 이 같은 디자이너 실명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동광인터내셔널은 여성 영캐주얼 SOUP, 비비트인유육과 함께 캐주얼 애드호크와 UCLA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제조기업이다. 플라타너스, 디케이엔 등의 관계사를 거느리고 있다. 20~30대 여성이 주요 고객인 동광인터내셔널은 여성 중저가 영캐주얼업계에선 선두주자로 꼽힌다.

5만~20만원의 옷을 만드는 ‘바키다매’ 전략을 표방하지만 품질 경쟁력도 중시한다. 디자인 실명제를 도입한 것도 품질경영의 일환이다. 옷걸이에 걸리지 못하고 행사장 매대에 ‘누워 팔리’는 제품(떨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회장은 “디자인 실명제를 도입한 뒤로 판매율이 20% 정도는 향상된 것 같다”며 “계절 기획상품도 다른 업체들처럼 품질이 떨어지는 원단을 쓰지 않고 덜 남기더라도 차별을 두지 않으면서 품질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디자인 실명제에 이름을 올리는 디자이너

▶ 늘어나는 동광인터내셔널 매출



▶ 이재수 동광인터내셔널 회장 라벨에 디자이너 이름 새겨 SOUP 등 중저가 여성의류 선도

는 30여 명. 잘 팔리는 상품을 만든 디자이너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의류업계에서 잔뼈가 굵었다. 국제상사에서 10년간 의류 생산 및 기획을 담당했다. 회사를 옮긴 뒤엔 리바이스, 켄유프, 보이런던 등의 브랜드를 출시하며 관록을 쌓았다. 1998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외국 브랜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던 무렵 창업에 나섰다. “지피지기”가 그의 작풍이다. 영캐주얼 시장에 뛰어든 건 1999년 SOUP 브랜드를 내놓으면서다. 패션의 대중화를 내세워 틈새시장이었던 중저가 의류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가성비 못지



이재수 동광인터내셔널 회장(왼쪽 세 번째)이 패션 디자이너들과 의류 시장의 트렌드를 논의하고 있다. 동광인터내셔널 제공

않은 품질 유지를 위해 원단을 저렴한 가격에 조달하고 직거래 생산을 확대해 원가를 낮췄다.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코로나19는 동광인터내셔널에도 위기였다. 매출은 해마다 늘어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분위기는 지난해 들어서야 반전됐다. 지난해 동광인터내셔널과 관계사는 총매출 2676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기록했다.

동광인터내셔널이 코로나19를 수월하게 넘어선 데는 운도 따랐다. 가산디지털벨리에 있던 3층짜리 본사를 개발해 속칭 대박이 났다.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한 이곳은 코

로나가 닦이기 전 분양이 끝났다. 동광인터내셔널은 이달 말 새 사옥에 입주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3040 여성층에 맞는 신규 브랜드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19년 41조원이었으나 지난해 46조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침체를 벗어나 성장세로 돌아서는 추세다.

이 회장은 매일 오전 6시면 대모산을 오른다. 30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은 그만의 루틴이다. 그는 “산을 오르다 보면 경영적인 고민에 대한 해법이 나오곤 한다”며 “산은 교과서”라고 강조했다.

이정선 기자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기로 우울증·난임 치료 돕는다”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 ‘모비케어’ 650개 병원에 보급 내년 미국 등 해외진출 본격화

“지난 3년간 10만 명 이상이 모비케어로 심전도 검사를 받았습니...”

이영신 씨어스테크놀로지 대표(사진)는 최근 “간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는 장점 덕분에 모비케어의 인기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비케어는 장시간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기존 홀터 검사 기기보다 가볍고 검사시간도 긴 게 장점이다. 기존 홀터 기기는 500g 안팎이지만 모비케어는 19g에 불과하다. 기존 기기는 측정기간이 길어야 1~2일이지만 모비케어는 9일까지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심전도 결과도 분석해준다.

이 대표는 “기존 홀터 기기와 동등 성능 비교 임상연구에서 우수성이 입증됐고 연구 결과는 학술지인 ‘센서스’에 실렸다”고 말했다.

편의성이 뛰어난 장점 덕분에 모비케어는 국내 650개 병원에서 쓰이고 있다. 그는 “요즘에는

하루 500~600명이 모비케어로 심전도 검사를 받고 있다”며 “연말까지 병원 1000곳에 보급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씨어스는 정신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도 모비케어를 활용하는 임상연구를 3년째 하고 있다. 자율 신경검사를 통해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약을 찾아주는 연구가 대표적이다. 난임환자의 배란주기를 예측하는 연구도 하고 있다.

씨어스는 올해 매출이 세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추축했던 수출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11억원)을 뛰어넘었다”며 “올해 매출은 4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시장 진출도 추진 중이다. 모비케어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연내 승인이 나면 내년 1분기부터 미국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씨어스는 코스타다 시장 상장도 추진 중이다. 지난 6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조만간 상장

을 예정이다. 오현아 기자



▶ 교원, 직방과 메타버스 협약 가상오피스 ‘교원타워’ 열

교원그룹은 부동산 플랫폼 기업 직방과 메타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교원은 직방의 가상오피스인 ‘소마’를 활용해 ‘교원타워’를 오픈한다. 가상공간에 아바타를 출근시켜 오프라인과 비슷한 협업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가상오피스를 통해 효율적 비대면 업무 환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파트너사, 스타트업에 위한 가상 공간도 마련한다. 현실과 가상 세계를 유기적으로 융합해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학원 및 공부방과 같은 메타버스 학습센터도 구축한다. 학원 사업자, 강사 등 교육업계 중사자가 오프라인을 넘어 메타버스로 학습 공간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경주 기자

실제 코스 같은 굴곡... 아마추어 돕는 골프 매트

▶ 으뜸종기

“아마추어 골퍼들도 실력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3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서 만난 이명직 바론은 대표(사진)는 회사 로고가 인쇄된 상의를 입은 채 “아이템에 확신이 있었다”고 힘줘 말했다. 바론은 페어웨이의 다양한 곡면을 구현하는 골프 연습 플레이트 ‘리얼필드’를 개발했다. 원천기술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특허도 냈다. 작동 버튼을 누르면 4초 안에 16개 모듈 움직임의 조합을 통한 3만8000가지 언플레이션 구현이 가능하다. 언플레이션은 골프 코스 지형의 높낮이 기록이나 굴곡을 말한다.

바론이라는 사명은 페어웨이나 그린에 볼을 제대로 올리겠다는 뜻은



▶ 바론은 ‘리얼필드’ 개발 3만8000가지 조합 구현

답고 있다. 법인 설립 후 2년을 갖 넘겼지만, 적극적인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뚫고 있다. 건국대와 중앙대 골프학과 연습 공간에 바론은

제품이 활용될 예정이다. 하반기엔 산학협력 방식의 인공지능 기술 연계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 지난 1일에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 업체인 지티알(GTR)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실내골프연습장 각 지점에 바론은 제품을 적용할 예정이다. 4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참가를 계기로 수출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일본 업체 세 곳, 중국 업체 두 곳과 수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론은 부설연구소를 두고 다음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골퍼 영상을 자동 촬영하는 앱, 균형을 잡아주는 거치대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며 “퍼팅용 목적으로 제작한 제품 ‘리얼핏’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윤희 기자

SK바이오팜 ‘차세대 신약’ 자문위 출범

세계적 석학들이 R&D 조언

SK바이오팜은 3일 세계적인 의사, 신약 개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과학자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미국 시장에 넘어서는 의약품(RPT), 세포·유전자치료제(CGT) 등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연구개발(R&D)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장 직속으로 설치된 과학자 자문위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표적항암 및 면역항암 임상과학계 기반 항암제를 선택했다. 5년 뒤 아시아 최고 방사성 의약품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의대 신경학과 교수, 민일 존스홉킨스 의대 방사선과 교수, 맹철영 SK바이오팜 신약개발부부장 등이 합류했다.

SK바이오팜은 그동안 자체 개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를 미국 시장에 안착시키고 캐시카우를 확보하는 데 전력을 쏟아왔다. 과학자 자문위원으로 다음 먹거리를 발굴하는 데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다음 성장동력으로 방사성 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표적단백질분해(TPD) 기반 항암제를 선택했다. 5년 뒤 아시아 최고 방사성 의약품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 사장은 “과학자 자문의 과학적 통찰력이 불확실한 미래의 나침반이 돼 줄 것”이라며 “글로벌 권위자로 구성된 만큼 SK바이오팜의 혁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영원히 기억될 한경과의 만남 기사액자로 간직하세요!

한경 기사액자 만들기

본인, 가족, 지인, 회사 관련 기사 등 한국경제신문, 한경BUSINESS, MONEY 지면에 소개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액자에 담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주문방법 STEP 1. 상품선택 ▶ STEP 2. 신청기사 입력 ▶ STEP 3. 주문자 정보 입력 ▶ STEP 4. 배송 정보 입력 및 결제

제품 구성

 황동 스탠드형	 두랄루민 스탠드형	 고광택 아크릴 스탠드 벽걸이 겸용
 아크릴 스탠드형	 알루미늄액자 벽걸이형	모든 제품은 ~ A4 타입 210·297mm ~ A3 타입 297·420mm 두 가지 크기입니다.

상세정보 및 주문 바로가기

문의 및 주문 02. 360. 4421 / members.hankyung.com

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한경BUSINESS MONEY